광양제철소 3고로 새로 태어난다

쇳물 생산 16년 10개월만에 조업 중단… 용광로 본체 내부 개수 공사

연간 생산 능력 371만t으로 확대… 4천600㎥급 대형 고로로 재탄생

16년 동안 5천295만t의 쇳물을 생산해온 광양제철소 3고로가 6일 개수작업에 들어가 오는 12월 다시 태어난다. 3고로 출선작업. 〈광양제철소 제공〉

16년 10개월 동안 쉼없이 쇳물을 생산하며 위용을 자랑해 온 광양제철소 3고로가 수명을 다해 6일 새벽 조업을 중단하고, 용광로 본체와 내부 등을 교체하는 개수공사에 들어갔다.

3고로는 오는 12월11일까지 66일간의 개수공사를 통해 내용적이 기존 대비 21% 늘어난 포스코 최초의 4천600㎥급 대형고로로 다시 태어나 연간 생산량이 종전보다 65만t 늘어난 371만t으로 확장된다. 이는 연간 승용차 65만대 가량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1990년 12월4일 첫 화입을 시작한 3고로는 내용적당 누계 출선량이 1만3천930t으로, 세계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일본의 미즈시마 4고로가 기록한 1만3천446t보다 500여t 많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고로로 철강사에 남게 됐다.

또 현재까지 총 5천295만t의 쇳물을 생산해 포스코 역대 고로 중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광양제철소 역대 고로 중 최장기간 조업한 고로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광양제철소 제선부 이상호 공장장은 "이번 개수공사를 통해 노수명이 20년 이상 확보되고 내용적도 최대규모가 되면 광양제철소의 원가경쟁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며 "경제적 공법 도입과 자력기술 적용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최단기간 내에 공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3고로는 개수를 앞두고 정상적인 쇳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작업을 통해 상반기 대비 5%이상 출선량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종풍시까지 일일 출선량 9천t 이상을 유지하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3고로 개수에 따른 쇳물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4개의 고로에서 추가적인 쇳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제철소 제선부 직원들은 5일 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3고로의 종풍을 기념하고, 최신예 기술을 갖춘 3고로의 재탄생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종태기자 jtlee@

"공제계약 소멸환급금 찾아가세요"

광주농협 연말까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권익보호를 통한 농협공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올 말까지 공제계약 '소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준일 현재 실효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만기일 경과로 소멸된 계약(해약환급금 또는 만기공제금이 없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농협보험 홈페이지(http : //insu.nonghyup.com)에서 소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농협은 대상 계약자에 대해 안내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 청구는 본인이 신분증 및 공제증권, 도장(서명도 가능)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농협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병원내 산후조리원은 免稅사업"

의사·간호사 진료 의료 업무 해당… 일반 조리원과 구별

일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이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하는 병원내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한 의사 A씨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면서 진료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부인과 병원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도 아니다"라며 부과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A씨는 이들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같은 건물의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등이 신생아실에 대한 회진을 실시해 의료용역을 제공했고 간호사들도 의료보건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수입 쇠고기 덤빌테면 덤벼!

한우업계 소비자 입맛잡기

판매촉진·홍보 활동 전개

"한우 참맛을 알면 수입산 고기 못 먹죠"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거센 공세에 대응, 한우업계가 주부·청소년 등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프로모션과 홍보에 본격 나선다.

한우협회는 오는 11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광주·전남·경기·경남·경북·제주 등에서 연말까지 잇따라 '소비자 한우 맛들이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거 초청해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한우고기를 맘껏 맛볼 수 있는 시식회와 강연, 한우농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소비자들에게 맛·안전성 등 한우품질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11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서 '목화 축제' 기간 펼쳐지는 '한우 맛들이기' 행사에는 서울 명일동 LG아파트 부녀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오찬으로 불고기 등을 시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50만~200만원어치의 한우고기가 준비된다.

한우협회 경남도지회는 미래 소비자인 아이들에게 한우의 참맛을 각인시키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주·전남지회도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이 기간 중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한우 홍보도 한창이다. 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개 공중파 방송사의 TV, 라디오 방송에 '대장금편' CF를 하루 평균 4~5차례 내보내고 있다.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카피를 앞세운 이 광고는 오는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國稅 전자신고서 작성 어디서나 가능

종합소득세 등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이 저장된 특정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국세의 전자신고서 작성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특정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했던 세금신고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9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서비스는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과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양식 등이 입력돼 있지 않은 다른 개인용컴퓨터(PC)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 전자신고서 작성은 양식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을 수 없어 납세자가 양식을 저장한 특정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성 중이던 내용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작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땅값 소폭 상승

한달새 0.08%·0.07% 올라

광주·전남의 땅값이 한 달 새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8월 지가는 전달보다 각각 0.08%, 0.07% 올랐다.

광주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안정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서구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0.14% 올랐고 광산구는 수완, 선운, 하남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0.1% 상승했으며 지난 6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던 남구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04% 올랐다.

전남지역도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주변 리조트사업 가시화 등으로 0.10% 올랐고 혁신도시 예정지인 나주시도 보상 시기 등이 겹치면서 평균 0.13% 올랐다.

J프로젝트 사업지역인 영암군은 8월 F1(포뮬러원)경기장 건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 예정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월대비 0.12% 올랐다./최경호기자 choice@

GS자이 1140세대 공급

광주 북구 신용동에

GS건설은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자이'아파트 1천140세대를 분양한다.

공급 면적은 112㎡, 116㎡, 164㎡, 192㎡ 등 4가지로, 분양가는 ㎡당 196만~200만원이다.

단지가 위치한 신용동·양산동 일대는 빛고을로 연장, 호남고속도로 신설(장성~담양) 등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또 인근 첨단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광주의 새로운 주거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의 062-368-2020. /최경호기자 choice@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율
5.85%(확정금리)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